

2008년 9월 4일 목 말씀

8월15일 행사 때도 수련회 때도 예술단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못하면 예술로만 들어가니까 조심하고 신앙의 뿌리를 먼저 박고서 예술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잘 지도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고 관리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문제 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동물도 길들이고 만들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모르고 지도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육신도 그렇지만 정신적 지도를 참 잘해줘야 합니다. 몇 십 명을 지도하건 몇 백 명을 지도하건 누군가를 지도하는 것은 다 큰 것입니다. 지도를 하려고하면 다 허공에 빠집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생 되기를 좋아하나? 좋아 하지 말라. 책임을 져야한다.' 하셨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공부 못해서 원하는 학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악을 먹고 잘 가르쳐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지도자들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 해봐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글을 쓰고 교정 안 보고 책을 내면 진짜 큰 일 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글씨를 한자도 안 틀리게 교정할 수는 없지만 틀린 글씨 찾는 것은 쉽습니다. 인쇄소가면 자동적으로 싹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글씨는 고쳐줍니다. 그러나 내용이 틀린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앞 뒤가 바졌나 이런 것은 자동으로 고쳐줄 수가 없고 본인이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인생도 전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정을 해야 됩니다. 남 교정만 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 자기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하면 다 됩니다. 빼도 교정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교정합니다. 무서운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꼭 잡고, 기술로도 잡아서 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내가 좀 압니다. 일반적인 것, 기술로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은 팬찮지만 어떤 투자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고기를 기를 때는 열심히 밥을 주면서 기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잡아잡니다. 그물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중국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나는 거의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내가 올해 한국에 들어오니 세계로 나간 사람들도 한국으로 다 왔습니다. 금년도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적당히 해서 나가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는 걸 알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확장하면 안 됩니다. 확장을 하려면 100이라는 데서 170 오르면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100일 때 확장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일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들에게 '벌리면 찢어진다.' 가랭이 벌리면 찢어지듯 무조건 짝 벌리면 찢어지는 사람이 90%입니다. 섭리의 복음 사업도 절대 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물이 넘쳐 넘어갈 때 그때 벌리는 것입니다. 물이 그릇에 넘쳐 넘어갈 때 그때서야 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리다 찢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벌리다 찢어집니다. 이게 사업의 철학입니다. 그러니 잘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여유 있을 때 물이 넘쳐 날 때 그때는 어차피 흘러내려가게 되어있으니 그릇이라도 대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란스를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일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알뜰하게 해나가도록 하십시오.